

새로운 트렌드 ‘로맨스 없는 장르물’ 눈길

‘살롱 드 홈즈’, ‘서초동’
전문성·캐릭터 중심 서사

범인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부터 환자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실 의사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변호사들까지... 안방극장 속 주인공들이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와 눈이 맞아 연애하는 전개는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의 공식처럼 통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로맨스 대신 주인공들의 색다른 케미(호흡)에 중점을 둔 드라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ENA에서 방송 중인 ‘살롱 드 홈즈’가 대표적이다.

이 드라마는 대단지 주공아파트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주부들의 코믹 액션 활극이다.

비상한 주리력을 가진 주부 공미리(이시영 분), ‘여자 마동석’으로 통하는 전직 에이스 형사 추정자(정영주), 다섯 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미혼보 박소희(김다습), 보험왕 이력을 지닌 ‘눈치 백단’ 전지현(남기애) 등 개성 넘치는 여성 4명이 평화로운 아파트 생활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퇴치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연출을 맡은 민진기 PD는 제작 발표회에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살롱 드 홈즈’ (왼쪽), ‘서초동’의 한 장면.

민 PD의 설명대로 이 드라마는 로맨스 대신 여성들 사이에 맺어진 끈끈한 우정과 유대감, 즉 ‘워맨스’(Womance)를 보여주며 호응을 얻고 있다.

각자의 특기를 살려 연대하며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고, 일상 속 악당들을 속 시원하게 응징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평이 나온다.

시청률 1.3%로 출발한 이 드라마는 6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 3.4%를 기록했다.

tvN 새 드라마 ‘서초동’도 로맨스를 전면에서 내세우지 않았다.

당초 문가영과 이종석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에 둘의 연애 구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드라마 홍보 자료에서 로맨스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지난 5일 방송된 첫 회도 주인공 변호사들의 근무 일상을 담아냈다.

‘서초동’은 법조타운에서 근무

하는 이른바 ‘어쑤 변호사’(법무법인 고용 변호사) 5명의 직장생활을 그린다. 이종석은 9년 차 변호사 안주형 역할을 맡았고, 문가영은 1년 차 햇병아리 변호사 강희지를 연기한다.

실제 변호사가 극본을 맡았고, 법률가 5명의 일상을 담은 잔잔한 성장물인 만큼, 로맨스가 나오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MBC에서 방송 예정인 ‘메리 킬즈 피플’, JTBC ‘에스콰이어’도 로맨스 대신 장르적 완성도에 주력한 작품으로 보인다.

이보영·이민기 주연의 ‘메리 킬즈 피플’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조력 사망을 돕는 의사와 이를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이진욱·정재연 주연의 ‘에스콰이어’는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은 사회생활에서 서툰 신입 변호사의 능력 있는 파트너 변호사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과거에는 장르물인데도 시청자층을 확장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로맨스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 시리즈 중 로맨스 없는 장르물이 잇따라 호평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흥행에는 러브라인이 필수라는 기존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 한국 드라마는 ‘기승전 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배경에서도 무조건 사랑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OTT의 등장으로 한국 드라마가 이 관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로맨스를 덜어낸 드라마는 러브라인에 가려질 수 있는 주인공의 성장 서사와 직업적인 전문성, 캐릭터들 사이의 끈끈한 우정 등 다른 코드를 강조하며 기존 드라마와 차별성을 갖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결스데이 민아·배우 온주완 11월 결혼

그룹 결스데이 출신 가수 겸 배우 방민아(32)와 배우 온주완(42)이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린다.

방민아 소속사 SM C&C는 “방민아 배우와 온주완 배우가 오랜 인연에서 연인으로 사랑을 키워왔고, 오는 11월 함께 평생을 그려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민아는 2010년 결스데일로 데뷔했으며, 2011년부터 배우로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았다. 드라마 ‘뽀파이어 아이돌’, ‘미녀 공심이’ 등에 출연했다.



가수 겸 배우 방민아(왼쪽)·배우 온주완.

2002년 드라마 ‘야인시대’로 데뷔한 온주완은 2016년 방송된 ‘미녀 공심이’에서 방민아와 함께 출연했다. 영화 ‘발레교습소’, ‘시간이탈자’,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 등에서 활약했다.

연합뉴스

“박서준도 반한 맛” 무단 홍보, 식당에 500만원 배상 판결

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

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8년 방송된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가게 홍보를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라이즈, KSPO돔서 첫 콘서트... “어떤 기대하든 그 이상”

4~6일 공연 전회차 매진
메가박스 28개관서 상영

그룹 라이즈가 첫 단독 콘서트 투어에 나선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라이즈가 4~6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단독 콘서트 투어 ‘라이징 라우드’(RIIZING LOU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이번 콘서트에서 지난 5

월 발표한 첫 정규앨범 ‘오디세이’ 수록곡 ‘플라이 업’, ‘백 배드 백’ 등의 무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데뷔곡 ‘갯 어 기타’, ‘봄 봄 베이스’ 등 기존 대표곡 무대도 펼친다.

첫날 공연은 국내를 비롯해 영국, 독일, 멕시코 등 세계 13개 지역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국내에서는 메가박스 28개 상영관에서 단독 상영을 진행한다. 서울 공연은 모든 회차 티켓이 매진됐다.

라이즈 멤버들은 소속사를 통해

후회 없는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은석은 “첫 단독 콘서트인 만큼 관객분들이 꼭 다시 오고 싶을 만한 콘서트를 만들어보려고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소희는 “어떤 것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즈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홍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등 14개 지역을 순회한다.

연합뉴스



라이즈 ‘라이징 라우드’ 포스터.

JTBC - 지상파 3사 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갈등

JTBC와 지상파 3사 간 올림픽·월드컵 공동중계방송권 협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최소 5천억원, 최대 7천억원까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전해진다.

JTBC는 이후 중계권 재판매 공개입찰에 들어갔다. JTBC는 자사를 포함한 2~3개 방송사의 공동 중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중계엔 부정

적인 입장이다.

JTBC는 입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지상파 3사가 2011년부터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방통위는 양측 입장을 듣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사업자 간 가져분 신청과 공정위 제소 등으로 입찰자가 커서 중재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분쟁 조정이나 사실조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안간국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올여름은 국내로! 이웃집 찰스(재) 10: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30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안간국장 스페셜 11: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1:20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리 좋아좋아 11:15 헬로키키 TV생물도감2(재) 11:45 주니토니 이야기(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헬배! 지역경제 우수중소기업 건강·농특산물박람회(재)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에!갤러리 11:00 보석아내 건강 수다	8:00 덩동댕 유치원 8:50 영유아 클래식 e 9:40 PD로그(재) 10:30 한국기행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5:10 고향민족 17:00 페퍼 피크 17:40 도깨비 프랜즈 쇼츠
KCTV				
8:10 나혼자 여행지도 9:00 KCTV 9시 뉴스 10:10 지혜의 숲 12:00 뉴스선비 제주살이 13:20 K-우주탐사대 14:1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5:2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16:10 지혜의 숲 17:00 KCTV 17시 뉴스 18:10 KCTV10이브닝 칼렉션 19:00 KCTV 종합 뉴스				
제주 CBS FM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어떤가요 17:05 시사배거전 제주 17:30 저녁종합뉴스 18:00 한민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토리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여행전 18:05 달리는 라디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연속극 대문을 잡아라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라인W 23:35 우리 집 굿데이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20:30 박원숙의 같이 살시다 21:50 오래된 만남 추구 23:15 아이 러브 스포츠 23:40 더 시즌즈 박원숙의 컨터블레 스페셜	18:05 다큐 M 19:05 태양을 삼킨 여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폭 쉬면 다행이야 22: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나는 내 운명 23:50 나이트라인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동상이몽2 나는 내 운명 23:50 나이트라인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7일	
	36년 청천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 48년 연로한 어른에게는 안부인사로 격정을 덜어라. 60년 새로운 모임 또는 나를 리더로 필요로 하며 재정적 지원도 요청한다. 72년 사업에 자금이 지출되고 투자할 일이 생겨 고민한다. 84년 활발한 추진력과 활동성을 하게 된다.
	37년 상대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조절을 잘하라. 49년 함께 일을 하거나 남을 도움 일이 생긴다. 61년 신경이 예민해지고 대항하려 한다. 부부간 논쟁 주의. 73년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남과의 비교는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86년 상대의 도움이 큰 힘이 되지만, 의존이나 의타심을 갖지마라.
	38년 주변과 화합하면 안되는 일도 가능해진다. 50년 아침에 우울함이 늦게까지 가니 웃음과 기쁨을 만들면 좋다. 62년 부모님 또는 처 때문에 일거리는 늘어나고 분주하다. 74년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었으니 기대치에는 부족함이 있다. 86년 이성교제 또는 모임이 있다. 적극 참여하라.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39년 친구나 동료에게 신변에 이상이 와 병문안. 51년 자금지출이나 손재수가 우려된다. 문단속 철저. 63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어나 생상에 하자를 만드니 조심. 75년 과욕은 불만족을 일태하는 과몰입이다. 현실에 적당한 타협이 필요할 때. 87년 취업 또는 자취생이 있다면 서두르면 불리하니 신중함을 가져라.
	40년 뜻밖에 수입이 생기거나 일이 풀린다. 이랬사람과 상의도 필요하다. 52년 불만이 때론 다가와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 64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근심도 있다. 76년 업무과중으로 피로를 느낀다. 도와주고 구설을 받을 수 있으니 언행 주의. 88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활동도 나의 목표이다.
	41년 주위에 친한 사람 신변이상으로 병문안 할 일이 생긴다. 53년 돈 문제로 신경을 쓰거나 다툼이 있다. 65년 문서관련 문제가 발생하니 보증주의. 77년 상사와의 관계를 잘 지속하고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온다. 89년 기대하지 않던 소식이 있다. 소개팅이나 약속이 생긴다.
	42년 애뜻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면 일이 두배로 증가. 54년 자녀나 직원이 도움을 청하니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 66년 사람을 믿지마라. 내게 손실과 손해가 준다. 상냥하게 거절하라. 78년 금전지출 시비가 발생하나 돈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90년 가족,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43년 사업자는 확장보다 현재 유지를. 직장인은 변동수가 있으니 대비하라. 55년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해야. 부부간에 의견차이로 불화. 67년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지고 망신수 조심해야. 79년 부모와의 의견다툼이나 부부불화가 있으니 격한 감정은 조절하라. 91년 시기가 오면 결정을 신속히 하면 이득이 있다.
	44년 숨이 트이는 형국이며 분주히 활동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56년 두 마리 도끼를 쫓는 형국. 하나에 집중 필요할 날이다. 68년 많은 생각과 장고는 신속한 업무처리에 따지며 기회를 찾아 간다. 80년 취업이나 직장분쟁에 마음만 분주하다. 92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조심.
	45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해법을 찾아봐라. 57년 배우자 덕이나 재물이 길하다. 69년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자리를 이동하려 한다. 직업이 전 또는 신규 직장이 생긴다. 81년 친구, 동료를 자주 만나 정보교환 하라. 93년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않는다. 주변인의 지혜를 얻어라.
	46년 투자 시 많은 정보 속에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58년 문서상의 일이 생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 길이다. 70년 매매나 문서 계약전에 성사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82년 신경이 예민하니 상대와 경쟁하면 불리하다. 신경전은 삼가라. 94년 관재나 구설이 오니 외부 출타는 자제하는 게 좋다.
	47년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라. 마음 속의 진실도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효과가 있다. 59년 교통사고, 관재구설이 따르니 외출 자체, 조끼기까. 71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추진해도 무방. 명예에 따른다. 83년 결혼이나 맞선 또는 선약이 생기거나 한다. 95년 기쁜 일이 있을 후 걱정할 일도 찾아온다.